

## 봄철 빈틈없는 산불 예방! 서대문구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현)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봄철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산불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기상 여건과 산불 위험도에 따라 운영기간은 단계로 조정된다.

주요 업무는 산불 예방 활동 강화,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 전파, 산불 발생

시 진화 현장 출동 및 지원체계 확립 등이다.

구는 산불 진화 인력 184명, 예방시설과 진화장비 1,290여 점을 확보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한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해 실제 상황 발생 시 대응 능력을 높인다.

아울러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등산객과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 홍보 활동을 병행해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한다는 목표다.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은 “작은 부주의로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산불 피해를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도림천 횡단교량 다시 놓는다!”… 영등포구, 도림동-신도림역 연결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연결하는 ‘도림천 횡단교량’ 설치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는 현재까지 공사비 15억 원을 확보했으며,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도림역은 교통이 편리해 이용객이 많은 곳이지만, 도림천으로 인해 지하철역 이용 시 우회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다. 구는 보행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16년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교를 설치했으나, 2023년 1월 교량 처짐으로 붕괴되면서 준공 7년 만에 철거됐다.

구는 사고 직후 즉시 출입을 통제하고 임시 안전시설(가설벤트)을 설치했으며, 우회도로를 안내해 추가 사고

를 예방했다. 이후 2023년 2월부터 도림천 교량 신설계획 수립을 포함한 보행 동선 회복 방안을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같은 해 6월 도림천 징검다리를 임시 보행로로 개통했으나, 비가 오면 물에 잠기고, 눈이 오면 미끄러지는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상시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한 횡단교량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림천 횡단교량 설치는 영등포구와 구로구에 걸쳐 추진되는 광역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61억 원이 투입되는 서울시 투자심의 대상 사업이다. 구는 24년 4월과 25년 2월, 8월 총 세 차례에 걸쳐 투자심사를 요청하며 재원 확보에 나섰으나, 자치구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시의 ‘재검토’ 통보에

따라 한동안 진전을 보지 못했다.

사업 추진의 전환점은 2025년 9월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교부·운영 지침 개정이었다. 지침 개정으로 투자심사 없이도 국비 지원이 가능해지자, 구는 즉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구비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현재까지 총 15억 원의 공사비를 마련했다.

2월 7일 오후 2시 도림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교량 형식과 설계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설치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는 관심 있는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도로과로 문의하면 된다.

따라 한동안 진전을 보지 못했다.

사업 추진의 전환점은 2025년 9월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교부·운영 지침 개정이었다. 지침 개정으로 투자심사 없이도 국비 지원이 가능해지자, 구는 즉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구비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현재까지 총 15억 원의 공사비를 마련했다.

2월 7일 오후 2시 도림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교량 형식과 설계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설치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는 관심 있는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도로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사고 직후 즉시 출입을 통제하고 임시 안전시설(가설벤트)을 설치했으며, 우회도로를 안내해 추가 사고

를 예방했다. 이후 2023년 2월부터 도

림천 교량 신설계획 수립을 포함한 보

행 동선 회복 방안을 단계적으로 준비

해 왔다. 같은 해 6월 도림천 징검다리를

임시 보행로로 개통했으나, 비가 오면

물에 잠기고, 눈이 오면 미끄러지는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상시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한 횡단교량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림천 횡단교량 설치는 영등포구와 구로구에 걸쳐 추진되는 광역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61억 원이 투입되는 서울시 투자심의 대상 사업이다.

구는 24년 4월과 25년 2월, 8월 총 세

차례에 걸쳐 투자심사를 요청하며 재원

확보에 나섰으나, 자치구 재원으로 사

업을 추진하라는 시의 ‘재검토’ 통보에

따라 한동안 진전을 보지 못했다.

사업 추진의 전환점은 2025년 9월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교부·운영

지침 개정이었다. 지침 개정으로 투자

심사 없이도 국비 지원이 가능해지자,

구는 즉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구비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현재까지 총 15억

원의 공사비를 마련했다.

2월 7일 오후 2시 도림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교량 형식과

설계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수렴

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설치 방

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는

관심 있는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

으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도로과로 문

의하면 된다.

구는 사고 직후 즉시 출입을 통제하고

임시 안전시설(가설벤트)을 설치했

으며, 우회도로를 안내해 추가 사고

를 예방했다. 이후 2023년 2월부터 도

림천 교량 신설계획 수립을 포함한 보

행 동선 회복 방안을 단계적으로 준비

해 왔다. 같은 해 6월 도림천 징검다리를

임시 보행로로 개통했으나, 비가 오면

물에 잠기고, 눈이 오면 미끄러지는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상시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한 횡단교량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림천 횡단교량 설치는 영등포구와

구로구에 걸쳐 추진되는 광역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61억 원이 투입되는 서울시

투자심의 대상 사업이다.

구는 24년 4월과 25년 2월, 8월 총 세

차례에 걸쳐 투자심사를 요청하며 재원

확보에 나섰으나, 자치구 재원으로 사

업을 추진하라는 시의 ‘재검토’ 통보에

따라 한동안 진전을 보지 못했다.

사업 추진의 전환점은 2025년 9월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교부·운영

지침 개정이었다. 지침 개정으로 투자

심사 없이도 국비 지원이 가능해지자,

구는 즉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구비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현재까지 총 15억

원의 공사비를 마련했다.

2월 7일 오후 2시 도림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교량 형식과

설계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수렴

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설치 방

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는

관심 있는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

으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도로과로 문

의하면 된다.

구는 사고 직후 즉시 출입을 통제하고

임시 안전시설(가설벤트)을 설치했

으며, 우회도로를 안내해 추가 사고

를 예방했다. 이후 2023년 2월부터 도

림천 교량 신설계획 수립을 포함한 보

행 동선 회복 방안을 단계적으로 준비

해 왔다. 같은 해 6월 도림천 징검다리를

임시 보행로로 개통했으나, 비가 오면

물에 잠기고, 눈이 오면 미끄러지는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상시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한 횡단교량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림천 횡단교량 설치는 영등포구와

구로구에 걸쳐 추진되는 광역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61억 원이 투입되는 서울시

투자심의 대상 사업이다.

구는 24년 4월과 25년 2월, 8월 총 세

차례에 걸쳐 투자심사를 요청하며 재원

확보에 나섰으나, 자치구 재원으로 사

업을 추진하라는 시의 ‘재검토’ 통보에

따라 한동안 진전을 보지 못했다.

사업 추진의 전환점은 2025년 9월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교부·운영

지침 개정이었다. 지침 개정으로 투자

심사 없이도 국비 지원이 가능해지자,

구는 즉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구비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현재까지 총 15억

원의 공사비를 마련했다.

2월 7일 오후 2시 도림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교량 형식과

설계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수렴

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설치 방

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는

관심 있는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

으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도로과로 문

의하면 된다.

구는 사고 직후 즉시 출입을 통제하고

임시 안전시설(가설벤트)을 설치했

으며, 우회도로를 안내해 추가 사고

를 예방했다. 이후 2023년 2월부터 도

림천 교량 신설계획 수립을 포함한 보

행 동선 회복 방안을 단계적으로 준비

해 왔다